



제 112 호 2018. 8.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

경상북도 의회소식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정대로 455



Council.gb.go.kr



지면안내

- 제 11대 전반기 의회 출범 2~4면
- 의정소식 5~6면

- 상임위 활동 7~13면
- 의회운영 · 기획경제 · 행정보건복지 · 문화환경 · 농수산 · 건설소방 · 교육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14면
- 5분 자유발언 15면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장경식(포항) 의원 선출 부의장에 배한철(경산) 의원, 김봉교(구미) 의원 선출

경상북도의회는 7월5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 장경식(포항,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은 배한철(경산,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봉교(구미,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제11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화합과 소통, 경쟁과 변화로 달라진 제11대 도의회의 모습을 약속드리며, 새 출발선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질서확립! 으로 300만 도민의 행복의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경북을 만

드는 의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300만 도민의 권익신장과 도민 행복도를 높이는데 힘 없이 달려 나가겠습니다. 의원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두고 의원 역량강화를 통해 의회 위상을 높이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경북도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신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 하겠으며, 도민의 고충과 불편을 헤아려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의 본능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발전적이며 합리적인 정책 및 입법대안을 제시하여 경북발전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김봉교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부의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이지만, 본격적으로 열어갈 경상북도의회 전반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직 도민의 시각에서 지방의회의 본질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하여, 도민이 주인되는 경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3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상북도의회가 신명나게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도의회의 새로운 미래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

7개 상임위원장 선출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7월 11일 오전 11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개의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의회운영

위원장 박용선(포항), 기획경제위원장 박현국(봉화),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박영서(문경), 문화환경위원장 조주홍(영덕), 농수산위원장 이수경(성주), 건설소방위원장 김수문(의성), 교육위원장 곽경호(칠곡) 의원이 선출됐다.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상임위원 명단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박용선(포항) △ 부위원장 김대일(안동)

△ 위 원 김상헌(포항), 김영선(비례), 남영숙(상주), 박미경(비례), 박승직(경주), 박차양(경주), 신호광(청송), 이선희(비례), 이종열(영양), 이춘우(영천), 임미애(의성), 정세현(구미), 조현일(경산)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 인터뷰]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의회운영을 총괄하는 의회운영위원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제11대 도의회는 여러 정당 의원님들로 구성되다 보니 그 어느 때 보다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장경식 의장님의 철학을 적극 뒷받침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회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는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되 시책 방향이 맞지 않거나 잘못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견제하

고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의원 입법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의원연수회나 연찬회, 토론회를 확대 실시하고, 입법정책관실 연구 인력을 적극 활용,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제11대 의회에 바라는 도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여 그 어느 때 보다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 위원장 박현국(봉화) △ 부위원장 이종열(영양)

△ 위 원 김대일(안동), 김득환(구미), 남진복(울릉), 도기욱(예천), 박권현(청도), 박영환(영천), 윤승오(비례), 이철구(포항), 황병직(영주)



[박현국 기획경제위원장 인터뷰]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보살피고 함께하는 따뜻한 생활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으며,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투자유치활성화 등을 통해 300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서 경북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민의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곳곳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보다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의정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위원장 박영서(문경) △ 부위원장 임미애(의성)

△ 위 원 김상조(구미), 김하수(청도), 김희수(포항), 나기보(김천), 박미경(비례), 배진석(경주), 홍정근(경산)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인터뷰]

경상북도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 도민의 복리와 건강증진, 특히 여성·장애인·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담당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상호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 등 의정 본연의 활동에 주력 할 것이며, 민생관련 현안

사업은 도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한 후 최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원 연수,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소속 위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자세를 낮추고 위원회의 문을 활짝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상임위원 명단

문화환경 위원회

- △ 위원장 조주홍(영덕) △ 부위원장 박차양(경주)
△ 위 원 김명호(안동), 김봉교(구미), 김영선(비례), 김종영(포항), 박판수(김천), 박채아(비례), 이선희(비례)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 인터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 속 문화, 체육 활동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속 의정 활동을 매진할 계획이며 집행부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한편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에게 힘이 되는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시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환경업무가 날로 복잡해지고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상임위 위원들과 소통, 협의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최고의 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농수산 위원회

- △ 위원장 이수경(성주) △ 부위원장 이춘우(영천)
△ 위 원 김성진(안동), 김준열(구미), 남영숙(상주), 박창석(군위), 방유봉(울진), 신호광(청송), 안희영(예천), 임무석(영주), 한창화(포항)



[이수경 농수산위원장 인터뷰]

제11대 도의회 첫 출발과 함께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을 맡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대내외적 상황을 볼 때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농수산업을 미래 4차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과감하게 육성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활력을 되살려야 합니다. 생산과 유통·관광에 이르는 농어촌 6차 산업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식기반 농업전문 CEO 양성, 청년 창업농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품질 고급화로 경북 농업의 명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 양식업 첨단화, 환동해시대 대비 항만 경쟁력 강화 등 경북 농어업 발전을 위해 살아있는 현장여론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수산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들은 농어업인의 현안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살맛나는 경북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소방 위원회

- △ 위원장 김수문(의성) △ 부위원장 김상헌(포항)
△ 위 원 김시환(칠곡), 김진욱(상주), 남용대(울진) 박승직(경주), 박정현(고령), 오세혁(경산), 윤창욱(구미), 정영길(성주)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 인터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사회기반시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에서 중책을 부여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단과 채널 역할로 상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조정해 나갈 것이며, 집행부와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도정의 발전방향 등에 따른 질 높은 정책 제시를 통해 소통과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성중인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SOC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함으로 도민이 살맛나는 경북을 실현시키는데 적극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도내 어느곳이든 어렵고 힘든 곳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들을 것이며, 도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건설소방위원회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교육 위원회

- △ 위원장 박경호(칠곡) △ 부위원장 정세현(구미)
△ 위 원 고우현(문경), 박용선(포항), 박태춘(비례), 배한철(경산), 이재도(포항), 조현일(경산), 최병준(경주)



[박경호 교육위원장 인터뷰]

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며, 한편으로는 교육혁신과 미래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과 각계각층의 참여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 집행부와는 감시와 견제는 물론 협치로 경북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교육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의회 본연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여러 위원들의 열정과 역량을 모아 경북교육이 앞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는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약속합니다.

개원사

300만 도민여러분께 열과 성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여러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엄숙한 부름을 받고 등원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300만 도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제11대 경상북도의회가 출발하는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300만 도민여러분께 먼저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예순명(60명)의 의원들은 주민대표기관인 우리 도의회에 부여해 주신 권한과 의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열과 성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과 민선7기를 힘차게 출발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도 축하와 함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민 행복, 지역발전이라는 엄숙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도 경북의 자

존을 회복하고,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든든히 올려 놓아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명과 목표 앞에 너와 나, 여(與)와 야(野), 의회와 집행부가 다른 마음을 갖거나, 다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다함께 가야 합니다. 두 손을 맞잡고 함께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번 제11대 의회는 전례없이 전문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의정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당구조의 변화는 민의를 보다 더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새로워진 의정구도에서의 협치와 상생의 실험이 꼭 성공되도록 뜻을 모아야 합니다. 상호 배려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출신지역이나 소속 정파를 떠나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아시는대로 지방의회는 지방정치의 중심입니다.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녹이고 녹여서 모두가 공감하는 최선의 결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저는 우리 도의회가 활발한 정책토론과 공론화의 장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는 넓은 바다처럼 300만 도민 모두를 아우르고 크게 포용하는데 힘과 뜻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강한 의회, 보람찬 의정

활동, 도민이 주인인 경북을 만듭시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도록 합시다.

소통중심, 정책중심, 현장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의장실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출범하는 제11대 도의회가 그동안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빛나는 전통위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개원식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과 300만 도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7. 5.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 경 식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첫 임사회 열고 4년 임기 시작

임기 2년의 전반기 원구성(5일 의장단, 11일 상임위원장 선출) 후 업무보고 청취 등

제11대 경상북도의회의 첫 회의인 제301회 임사회가 7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60명의 의원들의 4년 임기 중 첫 회의인 이번 임사회에서는 전반기 2년 임기의 의장(1명),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7명)을 선출했다.

원구성 이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활동도 펼쳤다.

제301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의 첫날인 7월

5일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했으며, 이어서 60명의 도의원 전원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경상북도의회 개원식이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사회를 개최하여 제1회 추경예산확정 등 안건을 처리했다. 📢



의정 만평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참석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7월 6일(목) 오후2시 경북도청 동탁관에서 개최된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윤난숙)

가 주관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실천을 약속하는 기념행사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이철우 도지사, 기관·단체장, 도내 여성지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평등을 일상으로, 새 희망 경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이날 기념행사는 경상북도 여성상과 양성평등진흥 유공자 표창,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실천결의문’ 낭독, 오프닝 전자대북주제공연으로 민선7기 새로운 경북의 힘찬 출발과 경북여성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고 능력중심 성차별 없는 경북을 만들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



경상북도의회, 장기폭염에 따른 민생현장 점검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8월 2일,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내 가축폭염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상황 점검과 농축산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경로당의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의성지역 도의원인 임미애 의원이 동행하였으며, 먼저, 의성군 안평면에 위치

한 산란계 농장을 찾아 폭염피해 축산농가를 살펴본 후, 도 축산정책과로부터 도내 축산피해 현황 등에 대해서 청취했다. 특히, 8월 1일까지 집계된 우리도의 피해상황은 가축이 40만여 두(닭 393,063 / 돼지 3,950 / 기타 1,754)에 피해 추정액은 28억원 정도이고,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

道 농수산위원회 폭염피해 현장 긴급점검, 타들어가는 農心 위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 위원들은 8월 6일, 비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사상 유래없는 폭염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도내 폭염피해 수박농가와 닭사육농가를 긴급 방문하여, 농축산인들을 위로하고 피해상황과 구제대책을 보고 받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오전에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영주시 문수면 승문리 수박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로 이동하여 피해가 심각한 닭(육계) 사육농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농축산인들을 위로·격려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사항 보고, 추진상황 점검 예산결산특위 및 윤리특위 구성결의안 원안 가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선)는 2018년 7월 13일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이어서 제302회·제303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의 주요업무와 당면한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의회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에 따른

중앙지원사업 변경과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제302회·제303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원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다.

박용선 위원장은 제11대에 열린 첫 의회운영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방향 전반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므로 제11대 도의회가 그 어느때 보다 더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무처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도민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 부응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획경제위원회

재정지출 보다는 기업유치를 통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소관 실국 첫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제301회 임시회를 맞아 7월 17일에서 18일 양일간 소관 실국에 대해서 제11대 의회 첫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제302회 임시회에서는 7월 23일과 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였다.

소관 실국 첫 주요 업무보고 실시

먼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에서 현재 도청신도시 2027년까지 10만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상주인구는 1만 5천명 수준으로, 도 산하 유관기관의 이전과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를 유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각종 선거에서 제시된 저출산 공약을 연구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변인실 업무보고에서는 도정소식지인 『Pride 경북』의 의회소식란 내용이 너무 빈약하므로, 각종 조례안 처리현황 및 의정활동들이 상세히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해안전락산업

국 업무보고에서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는 원전해체 사업을 국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

미래전략기획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은 이미 타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중이므로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23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서울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북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 제안하였다. 동해안전락산업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신규 편성된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경상북도 에너지조례’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된 낭비성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조례에 명시한 대로 철저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 하였다.

일자리경제산업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중소기업과에 노사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심 또한 부족하다고 질타하고 주

기적으로 노사민정 회의를 개최하고 노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예산을 대폭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도시청년 시골과견제 사업내용을 물어보고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유치를 통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지확인 실시... 폭염에 따른 전력량 급증에 대한 대책 점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먼저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최근 24년 만에 닥친 폭염으로 전력량 급증에 따른 대책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환동해지역본부 방문하여 청사시설상황을 둘러보고 주요 추진업무를 청취하였다. 환동해지역본부는 2021년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부지 33,000㎡, 연면적 8,800㎡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청사를 건립 중에 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힘찬 출발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제1회 추경예산 심사로 도민의 복지증진에 한걸음 더!

제11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박영서 위원장(문경1)을 비롯한 임미애 부위원장(의성1), 김상조(구미3), 김하수(청도1), 김희수(포항2), 나기보(김천1), 박미경(비례), 배진석(경주1), 홍정근(경산1)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01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7. 16~7. 17일 이틀에 걸쳐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 공무원교육원 등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첫 업무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현황과 당면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점검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정책관 보고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등 공보육인프라의 확대 설치를 요구하였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지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요구했다.

도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입학생 모집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시설 확충과 홍보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였고, 도내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우수 지역인재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와 도립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요구하였다.

인재개발정책관 업무보고에서는 타·시도의 재경학숙 감소 추세 등을 지적하고 서울

지역 대학 뿐 만 아니라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대규모 시설의 이용이 불편한 도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로당 등 소규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법인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0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2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심사한 세출 예산안은 3조 3천 40억 원으로 도 전체 추경 예산의 40%를 차지하며, 여성·장애인·노인·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날 심사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들은 유사·중복사업 편성 등 예산과잉 투입 여부, 주요 신규·증액사업의 타당성 여부, 보조지원 예산의 합리성과 복지재정 지출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다.

소통과 협력으로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

금번 업무보고와 추경안 심사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상호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경에 심사된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당부했다.”고 밝혔다. 🍌



문화환경위원회

문화향유 기회 증대,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쓸 것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7. 17~7.18일 이틀에 걸쳐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소관 실국의 주요업무 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점검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차양 부위원장(경주)은 엑스포 공원에 8월에 개관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기념관의 빈약한 전시 콘텐츠를 질타하고 보강을 주문했으며 내실 있는 운영으로 엑스포 공원활성화를 주문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감소되고 있고 아울러 3대 문화권사업도 21년 종료 예정이므로 창의적인 주요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사업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선희 의원(비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이 경남 위주로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고 대가야의 중심인 경북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최근 도립예술단 일부 단원의 외부출강, 겸직 등 복무규정 위반을 질타하고 엄중한 조치와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으며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외부출강 승인이 아닌 허가로 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선 의원(비례)은 상주에 건립 중인 한복진흥원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한복문화재단 설립에 만전을 기하여 한복문화재단이 고부가가치 한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박관수 의원(김천)은 일본뇌염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의 신속진단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바이러스 환자발생을 선제적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호 의원(안동)은 안동 농산물 검사소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국비를 확보하여 포항, 구미에 농산물 검사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조주홍 위원장은 “11대 도의회가 출범한만큼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상호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의 필요성, 시급성 등 면밀히 살펴

7월 23일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박차양(경주) 부위원장은 문화관광 사업이 일부 시군에 편중 되는 것을 지적하며, 신라문화제 등 시군에서 개최하는 문화제에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영(포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의 사업비가 일부 감액된 것을 지적하고, 경북의 대표축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대학예술동아리의 지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복지방사업 예산이 보조사업자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재정난에 따른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 된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자칫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독립운동사적지그리기 행사의 경우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실적이 시군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과 적극적인 도민 홍보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봉교(구미)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는 물론 완전 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예방나무주사사업의 확대 시행을 주문하고, 이동식 목재파쇄기 지원을 확대하여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박관수(김천) 의원은 산불유관기관 합동진화 훈련이 자칫 전시행정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알찬 훈련과 교육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선(비례) 의원은 외국인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성 분석을 주문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조주홍(영덕)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다소 맞지 않는 사업들이 일부 편성된 것을 질타하고,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연내 집행하여 추경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열정넘치는 의정활동 돋보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정책마련과 환동해 북방경제 시대선점을 위한 종합계획마련 촉구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제301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6 ~ 17일 양일간 11대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소관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현재 당면 현안인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우리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고, 각종 시책들의 추진과정에서 각 주체들 간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농업 6차산업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에 참여한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해양어업관련 사업의 경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살펴서 시대적 흐름과 도민의 요구에 맞게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독도수호 결의안」채택 후,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심사 열정적인 의정활동 가져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제30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7. 23일(월),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독도 수호 결의안」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의결한 「독도수호 결의안」은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원들과 300만 도민의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제11대 도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제 303회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를 제안하였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 자체사업은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내시 등 당면현안사업과 같은 불가피한 사업은 보다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분야 심사에서는 도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사업집행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폭염피해 긴급 보고받고 신속대응 요청!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제30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7. 27일(금), 폭염피해관련 집행부의 긴급 보고를 받고, 폭염 피해 상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분야별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수축산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우리 도는 농수축산업의 비중이 큰 만큼 집행부의 각별한 대비와 선제적이고 발 빠른 지원을 요청하면서, 농작물의 피해 못지 않게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온열 피해도 걱정이 크다며, 관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별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상황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재난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닭·돼지 등의 가축 피해, 과수 열매·잎의 일소현상 등의 농작물과 양식 어류 등의 수산물 폭염 피해 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

도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담은 의정활동 돌입



【업무보고】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원구성이 된후 첫 일정에 들어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는 7월 11일 집행부 소관부서인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도청신도시추진단 업무보고에서는 도청신도시가 계획인구 10만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구유입이 부진함을 질타하고, 공공기관 유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통 및 복합물류센터 등 종합적인 산업인프라를 구축함으로 자연스레 사람이 모여들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청신도시내 인구와 상권이 주로 인근 지역인 안동과 예천에서 유입됨에 따라 기존도심이 침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도시와 접한 시군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는 아직까지 포항과 경주는 지진에 대한 공포감으로 살고 있음을 안타까워 하며, 지진발생시 초기대응 매뉴얼을 지역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

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아울러 반상회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 위치를 알려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중인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지원’, ‘살기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이 10억씩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사업당 2개소만 실시하는 것을 질책하며, 안전마을 조성 예산을 늘리고 마을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양하게 수립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는 구미~대구~경산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망이 지난 4월 본격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이 지역내 이동이 활발해져 경제유발 효과가 상당히 클것으로 전망하고, 광역철도로 인한 주변지역에 대한 단계적 개발계획을 준비하여야 함을 역설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는 7월 23일 경상북도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도청신도시추진단 예산심사에서는 신도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령대

도 40대 이하가 82%로 젊은층에 다양한 문화환경이 요구되는 만큼, 경북도서관을 조기에 완공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민안전실 예산심사에서는 ‘조사실 영상 녹화장비 설치비’를 추경에 과목변경하여 시설비로 재반영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임을 따져 물었다.

도민안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지원’ 예산이 업무와 연관된 것인지에 대해 질책하고, 예산수립시 부서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도시국 예산심사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위해 ‘한마음 음악회’ 경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임을 질타하고, 경북도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관내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강설, 호우 등 국지적 재난으로 인해 도로 훼손이 빈번함을 강조하며, 도로의 유지보수 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사업소 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을 주문했다.

소방본부 예산심사에서는 가급적 경상경비를 지양하고 긴급하거나 불가결한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소방서에서는 사무실 집기 등 운영경비로 계상한것에 대해 질책했다. 🍌

교육위원회

제11대 전반기 첫 상임위 업무보고 및 경북교육청 추경예산안, 수정 의결

【업무보고】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7월 16일, 17일 양일간 경상북도교육청, 4개 직속기관,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교육전반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7월 23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추경 심사에서는 학생 안전·건강 분야, 대폭 증액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교육감 공약 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심사 결과 포항영신중학교 천장개체 3억 7,840만원 등 총 6억 274만원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수정 가결됐다.

정세현(구미) 부위원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하면서 학교 내 석면 제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화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 이행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요구하였으며, 내실있는 석면철거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우현(문경) 의원은 예산편성 단계 산정 시 기관별 일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또한 교원과 학교의 업무경감을 줄이고자 집행부에서 선정한 14개 과제를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행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의 일환인 학교공기정화장치확대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연구용역 결과 효과성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기계식환기설비 병행 설치 등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태춘(비례) 의원은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지역별로 고른 성과 달성을 요구했으며 육상 종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종목에 비해 전문코치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증원을 요구했다.

배한철(경산) 의원은 민선4기 교육감 공약 이행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사업의 타당성 및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민 및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도(포항) 의원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성능평가결과 검증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내진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현일(구미) 의원은 사립학교 과원교사를 파견 받은 사립학교에 1천

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사립학교 과원 교사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전체 사립교원 인건비 감축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우수한 제도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으며, 여학생들의 체육활성화 방안으로 체육 여교사로 구성된 연구회를 조직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인데 부족한 면이 있다며 지적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의 편성은 되도록 지양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추경 신규 사업 등 관련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고 향후 세밀한 검토로 당초예산에 필히 반영토록 요구했다.

곽경호(칠곡) 위원장은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의 신중하지 못한 답변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부족을 지적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은 대규모 시설공사나 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 적기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철저한 준비와 집행에 만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특별위원회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 위원장 오세혁(경산) △ 부위원장 남영숙(상주)
△ 위 원 김득환(구미), 김명호(안동), 김상조(구미), 김성진(안동), 박권현(청도), 박영환(영천), 박정현(고령), 박태춘(비례), 박판수(김천), 배진석(경주), 신호광(청송), 이재도(포항), 이철구(포항)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터뷰]

제11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첫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해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도내 구석구석, 도민 한분 한분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시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의 목적과 효과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예결위원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의결

청년일자리 창출, 저출산 위기극복 등 현안사업 추진 중점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 의결했다.

금회 확정된 추경예산의 규모는 경북도가 8조 2,368억원(일반회계 7조 4,708억원, 특별회계 7,660억원)으로 기정예산 7조 8,036억원의 5.6%인 4,332억원(일반회계 3,984억원, 특별회계 348억원)이 증가하였고, 도교육청은 4조 6,174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1,035억원의 12.5%인 5,139억원이 증가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저출산 위기극복, 학교 시설 내진보강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만큼 해당 사업의 시의성과 적절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주민협의 절차 이행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6건(도 2, 도교육청 4)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12억 1천만원(도 6억 1천만원, 도교육청 6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다.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후 바로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어져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 전시성 사업예산 등이 편성 · 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깊은 예산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남영숙) 위원 간에도 열띤 토론을 거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이 그 편성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



윤리특별
위원회

- △ 위원장 최병준(경주) △ 부위원장 박미경(비례)
△ 위 원 김상조(구미), 김준열(구미), 김진욱(상주), 남용대(울진), 윤승오(비례), 이선희(비례), 임무석(영주)



[최병준 윤리특별위원장 인터뷰]

제11대 도의회는 새로운 정치환경 변화에 맞게 도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의원의 청렴도와 책임성을 더 높이기 위해 청렴교육 등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에

게 신뢰받는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상호 협치를 통한 의회운영과 주민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도 먼저 솔선하겠으며, 도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촉구

황병직 의원(영주)은 12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득하위 90% 아동에게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황병직 의원은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6세 미만(0-5세/71개월까지)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며, 경상북도의 경우, 2018년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적용할 경우, 11만 6,927명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몇 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아동수당 제외 대상자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아동수당을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수당을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철우 도지사의 ‘젊은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범국민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비판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을 우선시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께서 저출산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모든 아동에게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황병직 의원(영주)

10년째 1만원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촉구

정영길 의원(성주)은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09년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명예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위훈 보국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수당으로, 세종시와 경상남도는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북도에서는 2018년 기준 21,643명에게 매월 만원을 지원하며,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인상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영길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을 보면, 6·25참전 유공자는 87세, 월남전 참전 유공자 71세에 이르러 매년 1천명에서 3천명씩 줄어들어, 평균연령을 고려해 보면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구호로만 호국정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2019년 예산 편성시 반드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편성하여, 6·25전쟁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선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타국에서 나라를 위해 기꺼이 젊은 목숨을 내놓으며 ‘경북의 훈’을 지켜왔던 참전유공자 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반드시 인상하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

동남권 제2청사 건립 논의 중단 및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촉구

김대일 의원(안동)은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제2청사 건립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안동·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은 수십년간, 경북에서도 가장 낙후된 오지로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으며, 경북도청 이전은 2006년 민선 4기 김관용 도지사의 공약으로 시작하여, 10여년에 이르는 긴 과정을 거쳐 이전 직원 1,556명, 부지 25만㎡, 연면적 14만 4,940㎡, 총사업비 3,920억원으로 2016년 3월 이전을 완료하여 경북북부권의 균형 개발과 동반성장을 기대했음에도, 결과는 인구 유출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구도심 공동화 심화와 도청이전에 따른 인근 시군 낙수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여년간의 절차와 과정을 밟아 신도청 시대를 시작하였음에도 신도청이 안착도 하기 전에 이철우 도지사는 제2청사 건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제2청사가 필요하다면 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선행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일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독단적이고도 일방적인 제2청사 건립 추진과 환동해지역본부 추가 인력을 파견을 중지하고, 기관 이전·인구 유입 미진과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도청신도시의 조기 활성화, 안동·예천 구도심 활성화 등 낙후된 북부권 시군을 위한 종합 발전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대일 의원(안동)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촉구!

박창석 의원(군위)은 19일 제3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미래발전의 최우선 과제인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통합신공항 이전은 지난해 350만명 이용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공항을 1,000만명 이상의 이용객과 수출입 항공물류를 감당할 수 있는 중·남부권 국제 관문 공항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은 1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1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모든 경제권이 국제공항이 있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해양 국제 관문을 가진 부산과 울산은 포함한 경남권이 거대한 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국제 관문이 열악한 대구경북은 내륙의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며, 통합신공항을 매개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경북도 전체의 발전 전략과 각종 SOC사업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창석 의원(군위)

보육교사 처우와 보육환경 개선 촉구

박미경 의원(비례)은 27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보육교사의 처우와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사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9시간 36분인데 반해, 휴게시간은 18분으로, 법정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확대해야한다며, 한명의 보육교사가 하루종일 아동을 돌보며, 보육일지, 아동관찰, 지역사회연계활동, 현장학습보고서, 원내행사, 안전교육일지, 평가인증 대비 서류 등 잡다한 서류 작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서 문서간소화와 업무메뉴얼 전산화 및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각종 알림장 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미경 의원(비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계획 즉각 중지 요청!

김준열 의원(구미)은 27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는 경북과 대구가 지혜를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문제로, 경북의 일방적인 이해와 배려를 빌미로 대구시민의 권익만 챙기는 대구시의 지역이기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를 두고 마치 구미시민이 터무니없이 뭉니를 부리는 것처럼 근거 없이 호도(糊塗)하거나 자국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낙동강 수질은 원칙적으로 국가 책임이고,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려면 구미시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 문제는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북도와 대구시, 구미시 간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함을 명백히 밝혔다.



김준열 의원(구미)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김명호 의원(안동)은 7월 27일 개최된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옥죄어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의·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호 의원은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조직과 인사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하고, 중앙정부의 사고에는 ‘자치의 주체가 주민이고, 그 대의기구가 지방의회’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중앙집권의 문제점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불균형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담아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담은 이 법안은 문화상현 국회의장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기에 어느 때 보다도 전망이 밝다고 보고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김명호 의원(안동)

제11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슬로건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



제11대 전반기 원구성 기념

